

김은 먼불에 구워라

망 산도 앞바다에 나가서 붉은 돛에 붉은색 기를 단 배가 보이면 즉시 봉화를 피워 짐에게 알리라” 수로왕이 꿈속에서 신령의 계시를 받아 신하에게 지시했다. 과연 정해진 시간에 바다에 배가 나타나므로 햇불을 올려 연락을 했다. 수로왕이 친히 마중을 나가 배에 타고 있던 인도의 공주를 맞아 왕비로 삼으니 이 들이 가야(伽倻)의 시조이고, 이 때 사용된 햇불이 문헌으로 나타나는 우리 역사의 최초의 봉화라고 하겠다.

봉화란 밤에는 햇불을 사용하고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변방의 정세를 중앙에 알리는 옛 통신수단의 일종이다. 봉화를 낭화(狼火)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이리의 똥이 연기가 많아 똑바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빗물에 젖어도 잘 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사용한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위의 가야국 햇불봉화는 그 사용 목적이 달랐지만, 봉화는 주로 긴급사태에 대비한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평시에는 하나를 피워두다가(一炬), 적군의 동태가 미심쩍으면 두개를 피우고, 행동이 드러나면 세개, 공격해 오면 네개, 접전이 시작되면 다섯개를 모두 피운다. 조선왕조 시대 서울에는 세개의 봉화대가 있었는데 남산의 것은 남해안에서 오는 것을 받고, 인왕산의 것은 서북방면 것을 받으며, 낙산 위에는 동북방의 것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순조 때 신망이 높던 영의정 김재찬이 서울역 뒤에 살 때에 홍경래의 난이 터져 인왕산의 봉화가 다섯으로 늘어났다. 조정에서는 영의정 들라고 급보가 빗발치는데 말을 몰아 달려도 시원치 않을 터에 평교자를 타고 장안 대로를 “비겼거라, 물렀거라...” 길라잡이를 시키며 한가하게 입궐을 했다. 순조임금이 심하게 책망을 하자 그의 대답이 걸작이다. “오면서 한가지 일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피난을 서두르던 백성들이 느릿느릿 놀이조로 입궐하는 영의정을 보고 “다 그만한 마련이 있어서 그럴걸세”하며 집으로 되돌아갔다. 백성들의 예측대로 난리는 오래 안가서 진압되었다.

인조임금 때 이괄이 난을 일으켜 경복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를 뒤쫓던 관군 대장 정충신이 남몰래 안산 봉화대로 숨어들어 서북쪽 지방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이 봉화를 한번만 들어올리자 남산 봉화대에서도 일거로 응하였다. 아직 관군이 뒤쫓아오지 않는다고 반란군이 방심하고 있는사이 관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여 반란군을 섬멸 함으로써 이괄은 3일천하의 막을 내려야했다.

봉화대의 안전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이는 당연히 적이나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여 봉화체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경이나 해변에 있는 봉화대는 적의 기습이 많았으므로 이들 봉수군에게는 최신의 병기를 지급하여 자체방위를 하게 하였다. 삼국지에서 관운장이 오나라의 애송이대장 여몽에게 최후를 당하게 된 것도 모처럼 갈아놓았던 봉화 연락망을 빼앗긴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봉화대의 안전대책 못지않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또 하나는 실화와 거짓봉화 방지책이다.

중국 주(周)나라의 유왕은 애첩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려고 거짓봉화를 올리게 했다. 이에 놀란 제후들이 황급히 달려 왔으나 적은 없고 그것이 거짓봉화였음을 알게되어 실망하여 돌아가자 포사가 깔깔 웃었다. 이를 본 유왕은 기뻐하며 계속 거짓봉화를 올려 포사를 즐겁게 하였다. 그후 진짜 적이 쳐들어와서 봉화를 올렸으나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31운동의 진원이 되는 천안의 아우내 사람들은 해마다 2월의 끝날 밤 아우내 장터에서 매봉 봉화대까지 횡행행진을 한다. 민족의 거사를 하루 앞둔 그날, 봉화불 신호의 비장함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리라.

왕십리로 시집온 색사가 반찬으로 김을 굽는데, 시어머니가 “김은 먼불에 구워라”했더니 남산 봉화불에 비취고 썼더라는 웃지못할 얘기도 있다.

金東一 /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